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38호 【부제 제 25747호】 주제 106 (2017)년 8월 26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7돛이 되는 선군절을 맞으며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훈련지도를 받게 된 특수작전부대 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남조선을 기어 무력으로 깔고앉아 조국통일의 광장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실 불타는 열의가 끓어넘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북군대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북군상장 박정천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선군절을 맞으며 조직된 이번 대상



은 포탄들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가상한 섬들을 사정없이 두들겨졌다.

순간 불도가니로 화한 적진을 향하여 영용한 특수작전부대들의 섬점령전투가 개시되였다.

저공비행하는 경수송기들에서 무하되어 적대상물들에 날새마냥 가볍게 착지한 특수작전부대전투원들과 수중으로 은밀히 섬에 침투한 전투원들은 혼비백산한 적들이 정신차릴 사이없이 불사격을 퍼부었다.

이와 동시에 고무단정에 오른 전투원들도 적진에 쓴살같이 육박하여 기습상륙을 진행하였다.

서슬푸른 비수가 되어 원수들의 숨통을 단호히 끊어버릴 멸적의 각오 안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온 전투원들이 최후발악하는 적들을 어러가지 전투행동조범으로 모조리 쓸어버리었다.

공부듯이 율리는 총성과 작렬하는 화염으로 하여 백령도와 대연평도에 도사리고있는 피뢰6해병려단 본부, 연평도서방어부대 본부를 비롯한 적대상물들은 순식간에 불도가니속에 잠기고 승리의 만세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2 면 으 로 계 속

물타격경기는 비행대와 포병, 특수작전부대들의 긴밀한 협동밑에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하며 일단 유사시 그 어떤 작전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된 특수작전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상물타격경기는 강력한 비행대, 포병화력타격에 이어 수상, 수중, 공중으로 침투한 전투원들이 대상물들을 습격, 파괴하며 백령도, 대연평도를

가상한 섬들을 단숨에 점령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강대한 선군조선의 힘과 불변의 의지앞에 전몰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말마적발악, 화약내풍기는 침략전쟁광기를 무적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고야말 전체 전투원들의 총천한 기세로 하여 훈련장은 용암마냥 끓어넘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적대상물타격경기진행계획을 취회하시고 공격진지를 차지

한 특수작전부대들을 돌아보신 다음 타격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전투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출격명령을 받아안은 우리의 붉은 매들이 조국의 푸른 하늘에 별적의 비행운을 새기며 적목표들을 쫓아 강타하였다.

이어 각종 구경의 방사포, 자행평곡사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헤가뜨며 번개같이 날

